

편집후기



River & Culture

청명한 하늘, 오색 찬연한 단풍으로 곱게 단장한 산,
황금빛 용단을 간 들녘, 상큼한 바람이 어우러진 가을이 깊어갑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는 사진 한 장 찍으러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계곡의 작은 폭포를 감싸고 있는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가을바람에 출렁이는 억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찍어보고
그렇게 자연과 호흡하며, 벗삼아 즐겨보면 좋겠지요.

이번 가을호에 하천사진전 당선작들을 수록했습니다.
많은 작품이 하천과 호흡하고, 벗삼아 즐기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새삼 자연과 어우러진 사람들의 모습에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자연환경은 '후대에서 빌린 것'이라 하지요.
'빌린 것'을 지금 세대의 과도한 욕망 때문에
후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채무'만 안겨줘서야 되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온전히 다음 세대에 전해주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지 않을까요.

김치영 | 편집위원

